

**주제 1**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은?**

- 2010년 작가의 집필 중단 사태를 겪은 드라마  
MBC <김수로>, SBS <대물>, SBS <나쁜 남자>를 중심으로 -

**김미숙(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드라마 작가)**



##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은?

- 2010년 작가의 집필 중단 사태를 겪은 드라마  
MBC <김수로>, SBS <대물>, SBS <나쁜 남자>를 중심으로 -

김미숙(경희대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드라마 작가)

학벌도 필요 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사회성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제멋대로 살아도 드라마만 잘 쓰면 왕처럼, 여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직업. 한 번 뜨면 계약금이 웬만한 집 한 채 값이고, 자신을 추종하는 탤런트들을 사단으로 이끌며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휘두른다는 직업... 드라마 작가는 이런 환상 속의 직업이다.

그러나 그 유치한 대사를 써서 전 국민을 울리고 웃기는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것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는 몇 십 배 더 힘들며, 가끔은 학벌도 필요하고 때로는 외모도 중요한 변수가 되며, 사회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계약금으로 웬만한 집한 채 값을 받았더라도 몇 년씩 작품을 못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할 수 밖에 없고, 탤런트 사단을 이끌며 나름 작가권력을 행사하는 작가 축에 끼는 것은 드라마 작가 414명(2010년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등록된 드라마 작가) 중에 적어도 상위 TOP 10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앞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상하고 기이한 드라마 작가의 세계,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2010년은 드라마 계에서 작가의 ‘집필중단’으로 로 몸살을 앓은 한 해로 기억 될 것 같다. 보통 ‘작가교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작가교체’라는 말은 방송사와 제작사 입장의 단어이고 작가의 입장에서는 ‘집필 중단’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할 것 같다. 작가의 집필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세 드라마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0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에 <MBC 드라마 ‘김수로’ 제작비 가압류>라는 특종기사로 세상에 알려진 <김수로> 사건은 제작사의 대표가 자신이 써온 대본을 최종대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과 작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 후 제작자와 감독의 극한 대립 중에 감독이 쓰러지자, 제작사는 12회까지 드라마를 집필해온 A작가에게 감독의 입원사실마저 숨기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게 되고, A작가가 이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그간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두 번째로 10월 중순 경에는 고현정, 권상우 주연의 SBS 드라마 ‘대물’을 1회에서 4회까지 집필했던 B작가가 감독과의 불화를 알리며 집필 중단을 했던 사건이다. 정치드라마이다 보니 ‘정치적 외압설’까지 난무 했던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제작사와 감독의 갈등에 다시 감독과 작가의 갈등까지 겹쳐진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세 번째로 2010년 5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방송됐던 SBS 드라마 ‘나쁜 남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하고 2회까지 대본을 썼던 C작가를 제작사에서 배제하면서 소송까지 이룬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소송이 마무리되어 제작사가 C작가에게 1억 3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100%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김수로>는 아직 소송중이고, <대물>은 아직 방영중이니, 이 사건을 둘러싼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작가의 집필 중단이라는 극단의 사태에 이른 세 사건의 배후에는 제작사와의 깊은 갈등이 있었고, 작가의 집필 중단 사태로 드라마의 품질 저하와 그에 따른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그 피해를 작가, 제작사, 방송사는 물론이고 아무 영문도 모르던 시청자까지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2010년 11월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는 제작자나 감독이 임의로 대본 수정을 할 수 없고, 더구나 그것을 빌미로 공동작가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등 회원작가의 고유 집필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KBS, MBC, SBS 등 방송3사에 밝힌 바 있다.

우리 방송이 외주제작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작가의 창작권이 훨씬 더 많이 침해받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드라마 작가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글에서는 확대 과장된 드라마 작가의 세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작가라면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집필 권리, 저작권 등이 기형적인 방송구조 때문에 침해 받음으로써 방송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짚어 보려고 한다.